

제18315호 2판
2009년 3월 14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시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내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9005)

편집부 2200-629 광고마케팅국

정치부 2200-616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국 2200-541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국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본지는 신문운송 강령 및 그 실천오류를 준수합니다



“30년간 첫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국민 배우로서의 삶도 지켜야했던 은혜정의 삶을 100% 이해합니다.”

KBS 2TV ‘미워도 다시 한번’에서 톱스타 은혜정 역을 맡아 여전한 미모와 함께 중년의 멜로를 밀도 있게 소화해내고 있는 전인화(44)는 “은혜정을 악녀나 펌프타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선과 악은 누구나 공유하는 것”이라며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이 여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우아한 여자의 변신 독·한·여·자

‘미워도 다시 한번’은 명인(최명길)이 자신의 남편 정훈(박상원)과 혜정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면서 제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명인이 혜정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복수를 하면서 혜정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

전인화는 “이제부터는 혜정이 사랑보다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명인이 알아채기 전에 혜정이 먼저 정훈에게 ‘이제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할나에 명인이 알게됐어요. 이제 명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혜정에게 치명타를 주게 되는데 혜정으로서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죠.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심리전이 시작될 겁니다. 사랑이 애증으로

바뀌는 모습도 그려질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 대항하는 모습도 그려질 것입니다.”

그는 지난 회 방송에서 극 중 시어머니(김용립)에게 머리

채를 잡으며 구타를 당했다. 늘 우아한 연기를 펼쳐온 전인화로서는 처음 당하는 봄비이었다.

“난생처음 맞는 연기를 했는데, 김용립 선생님께 딱지를 맞았을 때 ‘내가 지금껏 남을 때렸을 때 상대방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싶더라구요. (웃음) 그동안은 상대가 맞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당하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그래서 다음에는 때리는 연기를 뜯힐 것 같아요,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멜로를 해왔고 미혼이 넘은 현재도 멜로 연기를 멋지게 해내고 있는 그는 “젊었을 때는 주어진 극본에 의존해 연기를 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며 멜로 연

기를 한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드라마의 이야기들이 기습에 담겨 있으니 어떤 계산을 안 하고 하니

고 말했다.

“명길이 언니가 상대 눈을 보고 연기를 할 때 그 흡인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 저래서 대단한 배우구나’라고 느끼죠. 언니처럼 힘이 있는 상대 연기자와 호흡을 맞추면 즐겁죠. 우리들의 색감은 약간은 다른데 이 드라마에서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배우가 비슷한 색감이면 재미없는데 대비되면서 적당히 조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는 드라마가 어떤 결말을 끊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응시”라고 답했다.

“마음속이 이기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안 좋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다 용서가 돼서 주인공들 모두 자기 자리로 찾기 위해서는 연기자에게 좋습니다.”

“드라마의 이야기들이 기습에 담겨 있으니 어떤 계산을 안 하고 하니

‘미워도 다시 한번’

전
인
화



연약한 여자의 변신

강·한·여·자

‘잘했군 잘했어’

전
인
화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은 대개 보호본능을 일으킬 정도로 연약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훈자서도 잘 해 나갈 것처럼 비치나 봅니다. 제가 강하지 않은 배역을 많으면 일부 시청자는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안은 김정화가 그의 서비스로운 매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역을 맡았다. 14일부터 방송하는 MBC TV 주말극 ‘잘했군 잘했어’(극본 박지현, 연출 김남원·손형석)를 통해서다.

그가 극 중에서 맡은 나미라는 명품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멋진 여자다.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뮤지컬을 공부하고 나서 재즈댄스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극 중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약혼남인 유호남(김승우) 때문에 시련을 맛본다. 유호남과 옛 연인인 이강주(채림)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는 극 중 배역을 실감 나게 소화하려고 현재 한 달 이상 재즈 댄스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

그는 2005년 3월 막을 내린 드라마 ‘세 잎 클로버’ 이후 돌연 방송 무대를 떠났다. 1년 동안 학교(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열심히 다녔고, 그 이후 1년은 뮤지컬에서 기초 연기력을 뛰었다. 잘 나가던 20대 여자 스타가 2년의 공백기를 자초한 셈이다.

“뮤지컬에 출연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케줄이 바쁘고 항상 일에 대한 책임감에 시달렸지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데에도 부담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성격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지요.”

그는 “한 술 더 떠 황이 없을 때면 혼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며 “이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막연히 숨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이런 생활을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 KOREA
since 2005

www.assetkorea.co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류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전자현관문장 016-608-5951 주택/재개발 김찬호이사 010-8033-8114

소재지 대지/건물 갈망가 최저가 비고

궁동 대 48, 건 233 8억3천 3억7천 5층학원간

중동동 대 65, 건 23 4억5천 2억5천 원룸5세대

문의동 대 113, 건 169 111억 6억8천 층층도보원

신안동 대 222, 건 765 22억 9억8천 5층빌딩

우신동 대 72, 건 431 67억 24억 2개의 공동주택

오지동 대 211, 건 231 795천 3억3천 식물원경

중동동 대 106, 건 231 682천 2억7천 7층빌딩

자석동 대 151, 건 13 5억 2억2천 2층한국학교

모지동 대 131, 건 69 4억1천 2억8천 식물원경

평천동 대 52, 건 98 2억 1억 청년세대

송정동 대 127, 건 175 5억1천 3억6천 원룸24세대

전주동 대 102, 건 209 47억 30억 네트워크

여수동 대 120, 건 488 13억8천 6억2천 4층빌딩

구도동 대 209, 건 207 23억 5억4천 단층

소재지 대지/건물 갈망가 최저가 비고

소동동 대 10, 건 105 2억9천 1억6천 4층짜리

봉산동 대 52, 건 266 2억5천 1억4천 5층모텔

봉산동 대 69, 건 99 2억9천 8천4백평 3층빌딩

임동동 대 52, 건 96 2억5천 1억4천 3층빌딩

화정동 대 49, 건 145 4억6천 2억6천 4층전용주택

대안동 대 49, 건 145 4억6천 2억6천 4층전용주택

신도동 대 62, 건 138 4억5천 3억4천 3층빌딩

신도동 대 76, 건 94 3억2천 1억6천 3층빌딩

중동동 대 530, 건 1308 52억 29억 5층빌딩

연제동 대 100, 건 219 9억6천 33억4천 5층빌딩

증평동 대 66, 건 25 3억6천 1억6천 3층빌딩

증평동 대 38, 건 87 1억6천 1억 청년세대

증평동 대 38, 건 87 1억6천 1억 청년세대

증평동 대 43, 건 42 2억4천 1억3천 1억3천

주월동 대 43, 건 42 2억4천 1억3천 1억3천

전주시 대 100, 건 100 5억4천 5억4천 단층

전주시 대 100, 건 1